

문화외교를 통해 본 「일본적 가치」의 대외지향성

김필동*
kim509@hanmail.net

<目次>

- | | |
|------------------|----------------------|
| 1. 머리말 | 4. 선진대국 일본의 문화외교 인식 |
| 2. 제국일본의 문화외교 인식 | 5. 글로벌국가 일본의 문화외교 인식 |
| 3. 전후일본의 문화외교 인식 | 6. 맺음말 |

主 題 語: 일본제국주의(japanese imperialism), 일본적 가치(japanese values), 일본문화(japanese culture), 문화외교(cultural diplomacy), 국가이미지(national image)

1. 머리말

제국일본의 무모한 야망이 비참한 최후로 마감된 이후 패전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짧은 시간에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미지제고와 국제공헌을 위한 문화외교를 강화하며 일본의 국제적 지위향상을 추구하는데 진력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사회는 「각 지역의 대일관심의 정도, 관심의 대상, 이해의 정도 등의 실정에 따라 홍보하는 내용이나 효과적인 매체를 검토하여 세밀한 홍보사업을 전개」¹⁾하는 전략으로 상대국에 일본이해를 증진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른바 교류협력의 강화→일본에 대한 이해 증진→일본적 가치의 확산이라는 프로세스였다.

이를 통해 일본은 무력행사의 포기를 전제로 한 평화산업국가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켰고,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는 일본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며 흔들림 없는 선진민주주의국가로서의 지위를 구축했다. 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 GATT나 WTO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나 국제시스템하에서 불철주야 노력한 「일본국민의 각고정려(刻苦精勵)」의 결과라는 자평이다. 20세기 일본의 성공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제도, 그리고 일본적 가치의 우수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인식은 일본적 가치의 대외지향성이라는 관점에서

* 세명대 일본어학과 교수

1) 『外交青書』2001年度版、外務省、pp.133-134

보면 21세기의 일본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프레젠텐스를 어떠한 방향으로 추구할 것인가를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적 가치」²⁾의 확산을 주도하는 일본외교의 DNA가 제국일본의 문화외교로부터 출발했음을 확인³⁾하면서, 제국일본이 추구한 일본문화의 해외선양의 유산이 전후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과, 전전·전후를 통해 일본의 문화외교가 추구하고자 했던 일본적 가치의 해외발신 노력이 시대별로 어떠한 배경과 이념하에 추진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제국일본의 문화외교 인식

근대일본의 지배계급이 문화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20년대 말부터이다. 전쟁을 통해 대국이 된 제국일본의 지배층은 「우리나라 국가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유색인종(有色人種)의 장자(長者) 또는 지도자가 되어 그들의 발달을 유도하고 도와주는데 있다」⁴⁾는 인식을 일본사회에 확산시켜 가면서, 동시에 서구에 대항할 수 있는 「대륙제국」으로서의 일본의 존재감을 국제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문화」라는 외교적 수단이었고, 지배층은 일본의 「문화」를 어떻게 외교정책에 유효하게 활용하여 「제국의 진가」를 높일 수 있을까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모색하기 시작했다. 제국일본의 내셔널 이미지 체인지를 위한 방안이었다. 그런 흐름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 가운데 한명이 포르투갈의 대리공사를 역임한 야나기사와 다케시(柳澤健)다.

그는 구주(歐州)제국의 국제문화 사업에 커다란 자극을 받아 「대외문화사업」을 「일국의 문화외교」와 동의어(同義語)로 간주하면서 이것을 「국책(國策)」내지는 「외교정책의 관점」으로 파악할 것을 주장했다. 그에 의하면 「외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치·국방을 중심으로 하는 활동」이지만, 「국제문화사업」이라는 것은 「학술이나 교육, 종교나 예술, 또는 스포츠와

2) 「일본적 가치」란 일본인의 사유양식이나 행동양식과 같은 삶의 양식, 일본사회를 규정하는 제도나 관습과 같은 가치체계, 국가의 이데올로기와 지배구조와 같은 정체성 등 전통적인 정신성이나 사회적 시스템,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출처(2007)『일본 일본인인론의 재발견』J&C, 제 1장 참조

3) 졸론(2010)「帝國日本の '文化外交' に関する少考」『일본학연구』제29집, 참조

4) 杉村陽太郎(1933)『國際外交録』中央公論社, p.363

같은 이른바 문화적 방면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따라서 「국제문화사업」은 「때로는 분명 국방의 한 요소로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예상」할 필요가 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라도 「문화외교」가 정치·경제외교와 함께 3대 축의 하나로 인식되어 져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그는 문화외교는 「단순히 일국의 정치·경제적 방면의 활동 도상에 있어 분쟁을 방지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다하기도 하지만 일국의 정치·경제활동을 조장하고 강화하는 다대(多大)한 힘을 갖고 있기에 정치·경제·문화라는 「3면(三面)의 외교활동」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것」으로 간주해야 하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외문화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하는 구주제국 논자들의 주장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역설했다⁵⁾. 특히 스페인특명전권공사를 역임한 스마 야키치로(須磨彌吉郎)는 외교와 문화의 접점이 현대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전략임을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한 뒤 「문화가 융합하는 곳에 외교의 합치(合致)가 발생하고, 문화를 서로 받아들이지 않는 곳에 외교의 파탄이 초래된다」⁶⁾고까지 주장하면서 문화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계도 그 중요성을 설파했다. 백인제국주의 사상을 대체하는 새로운 동양의 통일사상으로서 「동아협동체」⁷⁾론을 주창한 철학자 미키 기요시(三木清)는 태평양 전쟁 직전에 요미우리(読売)신문에 투고한 칼럼(夕刊, 1940.9.11)에서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통해 일본의 문화에 접촉시키는 것은 추상적인 민주건국정신론을 외치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다」고 하면서 대외문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지식인들의 언론활동은 문화외교·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효과에 대한 국민계몽운동의 의미도 내포하고 있었다.

또 그는 일본문화의 힘은 「위대한 동화력」에 있다고 하면서 「외래의 요소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일본고유의 문화가 존재하느냐 마느냐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그보다는 「외국문화의 장점을 가미하여 종합하는 것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국제적 혹은 세계적문화이고 그것이 오히려 외부를 향해 그 힘을 발휘함에 있어 적합하다」고 했다. 외래문화를 일본의 고유한 전통에 접목하고 융합하여 발신하는 힘을 일본이 보유하고 있기에 일본의 문화는 세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훌륭한 문화라는 것이고 이러한 일본문화의 배움의 자세와 창의력은 「동아의 제 민족이 일본에 배워야 할 점이라고 했다⁸⁾. 일본문화가 해외에 진출하여 영향력을

5) 柳澤健(1934)「國際文化事業とは何ぞや」『外交時報』第704号, pp.71-74

6) 須磨彌吉郎(1928)「東洋文化外交試論」『外交時報』490号, p.38

7) 미키는 동양의 통일사상은 백인의 역사가 세계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세계사에 대해 소위 유럽주의, 세계를 백인들의 시각에서만 생각하는 사상을 타파하여 진정한 세계의 통일을 실현해야 할 의의가 있다고 했다. 대동아전쟁을 정당화하는 논리였다. 三木清(1938.12)「東亞思想の根拠」『改造』, p.12

8) 三木清(1940.11)「文化の力」『改造』, pp.116-120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 논리이다.

일본문화를 발신하기 위한 장치로서 문화협정체결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국제문제가 정치나 경제에서 사상이나 문화로 이행하고 있는 현실을 「국제생활의 발전」으로 규정한 다나카 코타로(田中耕太郎)는 국제사회의 발전의 의미를 일본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문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⁹⁾.

「문화협정은 요컨대 국가 간의 친선감, 우정감(友情感)의 솔직함 표명이다. 그것은 정치적 또는 경제적인 협정과 달리 이해타산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이해의 관점에서 관찰하면 가령 문화적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서로를 위한다손 치더라도 이것이 당사국의 국고에 경제적 부담을 가하게 된다. 요컨대 이해를 초월한 우정의 관계이다. 그것은 현재의 국제관계에 있어 국가가 다른 국가에 표명하여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우정의 의사표시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서는 그의 문화교류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문화교류는 정치적인 이해관계의 완화에 기여하는 「우정」이고 문화협정은 국가 간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우정의 의사표시」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한 서로 부담감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상호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교류를 전개해야 하고, 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널리 국민의 협력을 얻어 실행하는 것이 마땅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주체 역시 국민 각층에 의해 형성된 제 기관들, 이른바 「국민 전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관점에 입각하면 「문화협정의 배후에 정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하더라도 그 본질은 비정치적」인 것이기에 「오히려 정치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¹⁰⁾는 것이다.

제국일본의 식자층의 주장을 통해 우선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문화를 외교의 핵심수단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는 것, 문화외교가 정치 경제활동을 강화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된다는 것, 일본문화의 매력은 위대한 동화력을 가능하게 하는 창의력을 갖고 있다는 것, 일본문화는 동방유일의 대표적인 문화이고 따라서 이를 국제사회에 발신하여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요컨대 일본의 우수한 문화를 해외에 적극적으로 발신하여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제고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노력이 바로 문화외교이고 이는 그 어떤 외교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제국일본이 「일본문화」의 해외전파를 통해 침략국에서 문화국가로 자기변신을 시도한 결과가 성공했는지는 속단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일본이 제국으로서의 영향력을

9) 田中耕太郎(1939.8)「文化協定と文化耕作」『改造』, pp.8-9

10) 田中耕太郎「文化協定と文化耕作」(전계), p.10

확대하고자 하면 할수록 국제사회에서 문화의 가치와 발신이 국가의 위상이나 지위제고에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를 일본사회가 이른 시기부터 인식하고 실천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 관해서는 지식인들과 언론 그리고 정부관계자나 경제계의 주요 인물들이 대부분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었다. 1934년에 창립된 「재단법인국제문화진흥회(KBS)」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지만¹⁾, 문화외교의 중요성과 그 추진체제에 있어 범국가적 대응방식, 그리고 내용에 있어 일본적 가치의 발신의지는 전후에도 그대로 계승된 일본문화외교의 DNA라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3. 전후일본의 문화외교 인식

전후일본이 문화외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전후부흥에 성공한 1950년대 후반 무렵이다. 국제연합가입과 국내외의 정세변화에 따라 「새로운 발언력을 갖고 세계평화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기 위해서도 외교활동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일본이 주목한 문화외교의 의미는 과거와 같이 자국문화의 일방적인 「선양(宣揚)」이 아니라 전후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을 반영하여 「교류」「국제우호협력의 증진」「세계평화유지에 기여」라는 상호이해와 국제연대를 추구하는 이념으로 바뀌어 갔다²⁾.

이에 따라 일본은 「국제연합중심」「자유주의제국과의 협조」「아시아의 일원으로서의 입장의 견지」라는 외교 3원칙³⁾을 일본외교의 신기조로대내외에 표명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외교를 지탱하는 새로운 외교노선으로 문화외교를 중시하기 시작했다. 당시 일본정부는 표면적으로는 「국민 간의 상호이해를 심화시켜 그것이 국가 간의 우호친선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고 나아가 세계평화의 유지에 크게 기여한다」⁴⁾는 인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복귀에 즈음하여 과거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대외문화교류정책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 외교적 역할을 정부가 담당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각국과의 문화협정 체결과 동남아시아제국에 대한 경제지원·인적교류강화 등이 구체적인

11) 「재단법인 국제문화진흥회」와 제국일본의 문화외교의 전모에 대해서는 졸고(2010)「帝国日本の‘文化外交’に関する少考」『일본학연구』제29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참조

12) 졸고(2009.8)「戦後日本の国際社会への復帰と文化外交」『日本語文学』제 46집, 일본어문학회, p.392

13) 『わが外交の近況』外務省, 1957年9月「二、わが国外交の基調」参照
<http://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57/s32-2-1-1.htm#6> (2013.11.21.)

14) 『わが外交の近況』1957年9月「七、文化の面における国際交流」参照
<http://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57/s32-2-1-1.htm#6> (2013.11.21.)

로 진행되기 시작했고, 선진문화를 수용하기 위한 교류정책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¹⁵⁾. 문화교류에 대한 일본정부의 공세적 대응이 시작된 것이다. 그 배경에는 1) 구미제국의 왕성한 문화활동에 대한 자극, 2) 국제사회의 일본에 대한 관심증대와 그에 대한 일본사회의 적극적인 수용의지, 3) 경제성장에 의한 일본사회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서구선진예술문화에 대한 관심고조 등의 요인이 작용했다¹⁶⁾. 요컨대 전후의 경제부흥을 이룩했다는 자신감을 세계에 알리는 창구로서 문화교류를 강화했다는 것이고, 그 역할을 적절히 수행한 기관이 바로 전전의 「재단법인 국제문화진흥회」였다.

「진흥회」는 반관반민(半官半民) 단체로서 제국일본의 국제문화 사업을 주도한 뒤 전후 잠시 동안 활동이 중지되었지만 일본정부가 문화교류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60년대 들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1962년 2월에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수상을 신임회장으로 맞이한 뒤 임원진을 일신하여 60년대 문화교류사업을 주도하는 핵심기관으로 거듭났다. 소위 전전(戰前)의 「명예」있는 지위를 다시 획득한 것이다. 내각총리대신을 조직의 대표자로 하는 관행은 설립 초부터 정해진 규칙으로 이는 일본이 문화외교를 국책사업으로 얼마나 중시했는가를 가늠하게 하는 일례이다.

조직을 일신한 「진흥회」는 1)문화자료의 작성, 수집, 교환 및 배포, 2)일본인의 해외파견 및 외국인의 초청과 알선, 3)외국인의 일본문화 연구에 대한 편의제공, 4)해외에 있어 각종 문화관계 전람회의 개최와 참가 및 출품의 알선, 5)강연회, 전람회, 영화 및 연주회 등의 개최, 6)내외문화에 관한 지식의 보급, 7)도서실, 자료실, 연구실의 설치 및 운영, 8)재 로마 일본문화회관의 운영 및 뉴욕 주재원의 파견과 활동지도¹⁷⁾, 등의 사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각국과의 교류에 임했다.

「진흥회」의 교류실태를 보면 내용은 전전과 비교하여 큰 변화는 없었고, 주로 기술, 학술, 인물교류 이외에 미술, 영화, 연극 및 음악, 각종전람회, 스포츠교류, 일본소개전시품의 제공이나 기증 등의 분야가 중심을 이루었다. 다만 일본문화의 해외소개의 목적과 맞물려 일본 전통문화나 관련 자료의 해외기관에의 기증이 급증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우선 협의적 개념의 문화교류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교류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일본문화의 전통성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면서 동시에 전후의 눈부신 경제부흥을 이룩한 자신감을 문화교류에 실어 어필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다.

15) 이 무렵 일본의 문화외교의 인식과 그 추이에 대해서는 줄고(2009.5) 「戰後日本外交史における‘文化外交’の推移と意味」 『일본학보』 제75집, 한국일본학회, 참조

16) 줄고(2008.5) 「戰後日本外交史における‘文化外交’研究-1960年代を中心として-」 『일본학연구』 제24집, 단국대학교일본연구소, p.84

17) 『わが外交の近況』1963年度版、外務省、p.300

그러나 70년대가 되면 일본의 문화외교는 경제활동과의 불균형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지면서 국제문화교류를 소위 「국민적 사업」으로 승화시키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1973년도 판의 『우리외교의 근황』에는 다음과 같이 언급되어 있다¹⁸⁾.

「우리나라는 지금이야말로 시야를 넓혀 정치나 경제 분야에 그치지 않고 각국과 한층 더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하여 특히 폭넓은 분야에 걸쳐 인적교류를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리하여 우리나라는 제 국민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교류를 강화하여 인류의 지적, 문화적 자산의 증대에 한층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문화교류를 한층 확대하여 「마음이 통하는」관계를 구축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각국과의 협력체제의 구축이나 국내외의 사업형 재단의 설립 등에 의해 구체화되어 갔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주요선진국과의 문화협정 체결에 따라 이루어진 문화융합위원회의 개최, 전후부터 이어져 온 일미문화교육협력관계의 강화, 일본연구축진을 위한 특별기금 증여, 각 지역에 문화사절단의 파견, 아시아태평양지역 문화센터의 설치(ASPAC), 양국 간 문화교류협력의 강화 등을 통해 문화교류의 촉진을 꾀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4. 선진대국 일본의 문화외교 인식

70년대 들어 일본의 대외문화교류정책이 강화된 것은 이른바 「해외의 여론에 대해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우리나라에 대해 바른 이해를 얻기 위한 방책」¹⁹⁾과 「이데올로기나 국정(国情)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나라와 상호이해를 심화시켜 우호관계의 증진을 꾀하는 것이 필요」²⁰⁾하다는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결과였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의 대외문화교류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소위 국제교류기금(Japan Foundation)²¹⁾의 탄생이

18) 『わが外交の近況』1973年度版、外務省、「第2章 わが外交の基調 第1節 基本的課題」참조
<http://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73/s48-1-2-1.htm#m196> (2013.11.24.)

19) 『わが外交の近況』1971年度版「第6節 国際的な各種交流の促進」참조
<http://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71/s46-1-2-6.htm> (2013.11.25.)

20) 『わが外交の近況』1971年年度版「第3節 諸外国との関係の増進」참조
<http://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71/s46-1-2-6.htm> (2013.11.25.)

21) 전후일본의 문화외교에 있어서 국제교류기금을 탄생시킨 암즈랭스정책의 도입배경에 대해서는 졸고 (2010.5)「戦後日本の文化外交におけるア-ムズ レングス政策 の導入背景」『일본학보』제 83집 참조.

다. 동 「기금」은 「닉슨 쇼크에 상징되는 국제정치 흐름의 변화에 대한 일본의 대응측면과 일본의 경제성장과 국제적 역할 증대에 따른 문화교류의 의의 증대라는 측면²²⁾을 배경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외무성의 외곽단체로서 모습을 드러낸 국제교류기금은 60년대에 커다란 활약을 한 「재단법 인국제문화진흥회」를 모체로 하여, 이른바 「반관반민(半官半民)」단체라는 성격을 갖고 출발했다. 출발에 즈음해서는 60년대까지의 문화교류정책이 남긴 과제²³⁾를 개선하여 그것을 중점적으로 반영하려는 의지도 작용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널리 국제이해와 우호친선을 촉진하기 위해서도 교류기반의 확충과 교류의 방향성, 그리고 인물교류와 일본연구에 대한 원조를 중심으로 하는 폭넓은 문화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 체제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 근거했다. 설립목적과 사업내용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했다.

우선 설립 목적은 「우리나라에 대한 제 외국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국제상호이해를 증진시키고 동시에 국제우호친선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교류문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이로써 세계의 문화 향상 및 인류 복지에 공헌하는 것²⁴⁾으로 확정했다. 그리고 금후 추진해야 할 중핵적인 문화 사업으로서 1)국제문화교류의 목적을 갖고 행하는 인물의 파견 및 초빙, 2)해외에 있어서 일본연구에 대한 원조와 알선 및 일본어보급, 3)국제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전시회의 개최, 원조 및 알선, 4)일본문화를 해외에 소개하기 위한 자료 그 외 국제교류에 필요한 자료의 작성, 수집, 교환 및 배포, 5)국제문화교류를 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이 설정되었다²⁵⁾.

이후 국제교류기금은 일본의 국제적 지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해외로부터의 니즈에 대응하면서 국제사회에 일본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주도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연간 약 80여건에 이르는 일본전문가 초청과 연구구성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장기적 관점에서 세계의 일본연구의 저변확대는 물론이고 과거 제국일본의 동양학으로서의 「일본학」의

22) 國際交流基金(2006)『國際交流基金30年の歩み』中央公論事業出版、p.21

즉 2개의 닉슨쇼크는 전후외교의 한 축이었던 일미기축에 균열을 가져와 대미관계의 수복, 대중관계의 조정 등, 새로운 형태의 국제정치의 관여가 일본에 있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국제교류기금은 이러한 과제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때문에 설립당초는 대미문화교류를 강력히 추진한다는 측면이 강했다.

23) 그 과제는 1)구미에 비해 자금이 빈약하다는 것, 2)교류가 주로 「일본문화의 해외소개」에 역점이 두어져, 민간베이스에서의 교류는 취약한 반면 정부 원조에 의한 교류는 현저하고 일방적이었던 것, 3)일본문화의 해외소개에 전념할 인재의 확보가 커다란 문제였다는 것, 4)최근 선진제국에서 문화면의 국제협력, 특히 개발도상국에 문화교육협력이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일본은 아직 제 1보를 내딛은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 등이었다.

外務省文化事業部編『國際文化交流の現象と展望』, pp.10-11

24) 『國際交流基金法』第1章 第1條(昭和47年6月1日, 法律第48号)

25) 『わが外交の近況』1972年度版、外務省、p.386

의미부여를 향후 지향해야 할 과제인양 공을 들인 정책이었다. 80년대 이후 일본국내외에서 주목받은 일본문화연구의 활성화가 이러한 정책적 효과에 기인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듯하다.

이어 80년대가 되면 국제사회는 경제대국 일본에 대해 그 지위에 부합하는 책무를 보다 강하게 요구했고 일본으로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로 인해 80년대 일본의 문화외교는 70년대의 교훈을 살리면서 어떻게 경제대국 일본의 참된 모습(즉 얼굴이 보이지 않은 나라에서 얼굴이 보이는 나라로)을 세계에 알려, 그로부터 국제사회에 다각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국가건설을 국민과 함께 추진할 것인가에 집중되었다. 1980년도 판 『우리외교의 근황』은 이 목표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일본외교」의 포괄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²⁶⁾.

「국민각자가 내외에 있어서 다양한 활동과 교류를 통해 세계의 제 정세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켜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의 책임과 역할을 자신의 문제로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의 일본외교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의 외교에 과해진 책임의 중대함을 국민도 충분히 인지하여 그것을 자신의 문제로서 받아들이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제까지의 일본외교에 대한 진지한 자기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였지만, 한편으로는 이 무렵 세계가 일본에 요구하고 있던 책무, 소위 「세력균형(balance of power)」²⁷⁾에 공헌할 수 있는 체제를 일본사회가 어떠한 형태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와도 관련성이 있었다. 일본의 역할과 책무를 국민과 함께 하는 이른바 「올 저팬」체제로 국제공헌의 방법을 모색하면서 일본의 주장을 관철시켜 가는 목적지향적인 외교노선을 추구하겠다는 메시지였다.

80년대의 개막과 함께 외교노선의 변화를 시사한 것은 국제사회가 일본에 대해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국제관계조직의 유지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였기에 그에 순응해야 한다는

26) 『わが外交の近況』1980年度版、外務省、p.16

27) 외무차관을 역임한 호젠(法眼晋作)은 세계의 평화라는 것은 좋고 싫음에 관계없이 「밸런스 오브 파워」위에 성립한다고 하면서, 그 경우 「파워」라는 것은 「물론 군사력뿐만 아니라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파워이고 예를 들면 경제력, 기술력, 인적·물적 자원, 혹은 인플레이를 피하면서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한 테크닉이나 시스템, 정치적 안정성, 개도국과의 관계 등 그런 것을 모두 포함한다」고 했다. 즉 이러한 「밸런스 오브 파워」에 일본은 어떠한 형태로 공헌할 것인가 또 공헌하려고 하는가 등이 이 무렵 일본에 가해진 과제였다고 한다.

『日本の外交戦略』原書房、1981、pp.128-129

명분이 있었다. 하지만 일본정부의 내심은 경제외교를 축으로 일본경제의 성장과 번영의 환경조성에 초점을 맞춘 방어적 측면의 외교노선에서 국제적 지위변화에 상응하는 경제·정치적 역할을 강화하는 공격적 외교로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내외에 조성되었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외교전략(=정면돌파)을 통해 명실 공히 국제사회에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였다.

일본외교의 노선변화는 문화외교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1980년도 판 『우리외교의 근황』이 「각국 간의 상호의존 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오늘날, 문화교류를 통해 언어, 습관, 문화적 전통 등 각각의 사회의 기반에 대해 상호이해를 심화시켜 마음이 통하는 관계를 배양해가는 것은 갈수록 긴요하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국제교류기금 등을 통한 제반의 문화교류활동을 외교정책의 핵심가운데 하나로 한층 확충 강화해 갈 생각이다」²⁸⁾라는 입장을 표명한 것에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었다.

이는 체제의 변화로부터 시작되었다. 외무성에 문화외교를 담당할 「문화교류부」가 1984년에 신설된 것이다. 고도경제성장과 함께 문화교류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964년에 「문화사업부」를 신설하여 문화 사업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정비한 이래 20만에 다시 체제정비에 나선 것이다. 여전히 주요선진국에 비해 국제문화교류가 뒤쳐져있다는 반성에서 문화교류의 획기적인 진전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 국제교류기금과 연계하여 일본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정책의 기획·입안, 국제교류기금에 대한 지도·감독, 각종사업의 협력, 제 외국과의 문화교류활성화의 기반정비 등, 사실상 문화교류협력사업을 총괄하는 부서로 탄생했다.

일본 문화외교의 콘트롤 타워로 새롭게 등장한 문화교류부는 우선 외국과의 문화협정이나 교환공문 등 문화교류에 관한 약정을 적극적으로 체결하면서 동시에 이들 협정에 의거한 각국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제국과의 문화교류를 촉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일본은 1986년 단계에서 이미 25개국과 문화협정을 체결했고, 중국, 소련, 동구의 9개국과는 문화약정을 체결하는 등,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화교류의 기반조성에 주력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국과의 문화교류에 관한 협의(문화혼합위원회)를 활발하게 개최하는 한편²⁹⁾, 구체적인 교류는 주로 국제교류기금을 통해 각종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전략을 취했다. 그 과정에서 일본은 대국주의적인 「국제화」의식을 문화외교에 반영해 갔다. 80년대 일본의 대국화를 주도한 나카소네(中曾根)총리는 1983년 국회에서 행한 소신표명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주창했다³⁰⁾.

28) 『わが外交の近況』1980年度版、外務省、p.41

29) 문화혼합위원회는 80년대를 통해 매년 3~11회 정도 일본과 상대국 사이에 개최되어 각종 교류내용을 협의했다.

「단순히 경제의 국제화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세계적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국가로 보다 더 전진시키지 않으면 진정한 국제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본인이 2000년의 전통위에서 스스로의 특색을 발휘하면서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도 세계와 조화하여 세계적 보편성을 겸비하는 것이 지금 강하게 요청되고 있습니다.」

지배계급에 있어 「국제화」라는 것은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으로 일본의 가치를 세계에 확산시켜 인류공동의 과제나 보편적가치의 확산에 「공헌」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국제사회와 상호의존관계를 심화시켜 가는 「대국」이 될 수 있을까라는 문제였다. 바꾸어 말하면 「국제화」의 실현에 의해 「세계에 도움이 되는 국가」에서 국제사회의 「지도적 국가」로 거듭난다는 것이었다. 질 높은 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군사대국이 되지 않겠다는 입장을 수시로 밝혀온 일본이 이번에는 경제대국의 지위에 어울리는 역할과 책무의 요청을 「국제화」의 명분을 빌려 「대국일본」「팽창일본」의 기류를 조성한 뒤 그것을 문화외교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5. 글로벌국가 일본의 문화외교 인식

선진일본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확산시키려는 의지를 드러낸 일본은 80년대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의 이념을 향후의 외교정책으로 설정한 후, 이를 실천하기 위한 「국제협력구상」³¹⁾을 발표했다. 이 액션플랜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면 일본의 풍요로움과 활력, 일본의 사고방식이나 시스템 등을 세계를 향해 발신해 감으로써 세계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협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의미였다. 국제문화교류를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는 비군사적 경제대국을 실현한 「평화국가」의 이미지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냉전 후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구축에 유효하게 기능하는 커다란 힘이 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를 위해 일본정부는 범국민적 중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그 중의 하나가 「국제문화교류에

30) 第100回国会における中曽根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83年9月10日)

『わが外交の近況』1984年度版、外務省、p.376

31) 「대국」으로서 「세계에 공헌하는 일본」만들기를 실현하기 위해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협력강화」「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개발원조의 확충·강화」「국제문화교류의 강화」라는 3가지의 핵심 사안을 축으로 하는 「국제협력구상」을 말한다. 그리고 이 「구상」의 이면에는 동남아시아, 가운데서도 ASEAN제국과의 관계강화를 기대하는 의지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 金敬熙(2004)「援助における開発と環境規範の対立」『アジア太平洋レビュー』, p.28, 참조

관한 좌담회」의 구성(1988)과 활동 보고서였다. 보고서는 우선 국제사회에서 보다 공헌을 요구받고 있는 일본의 긴급한 국가적 과제는 국제문화교류 강화라고 지적한 뒤, 구체적으로는 국제교류기금의 활동기반 강화와 정부예산의 확충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했다³²⁾. 보고를 접한 정부는 1989년 6월 내각에 「국제문화교류추진회의」를 설치하여 폭넓은 견지에서 정부기관을 횡단하는 종합적인 문화교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리고 9월에는 동 「회의」가 「국제문화교류 행동계획」을 책정하여, 1989년부터 5년간 국제문화교류 강화를 위해 일본이 취해야 할 시책방향을 발표했다.

「행동계획」이 정리한 국제교류의 이념은 1) 상호이해와 신뢰관계를 확고하게 함으로써 평화롭고 안정된 국제관계의 구축에 기여한다, 2) 다양한 문화의 상호이해와 상호자극을 촉진함으로써 보다 풍요로운 문화의 창조와 세계 문화의 향상에 기여한다, 3) 급격히 고조되고 있는 다양한 대일관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4) 이 문화와의 접촉기회를 늘여 우리나라의 국제화를 진행시키고 국제적으로 열린 보다 풍요로운 문화를 가진 국가로 발전시킨다는 것 등이었다. 특히 국제문화교류의 중핵적 기관으로 설립된 국제교류기금의 활동기반강화와 사업의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³³⁾과 함께 그 역할강화에 대해서도 예산이나 체제의 근본적인 쇄신이 필요하다³⁴⁾는 것을 강조했다.

「행동계획」은 일본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을 담고 있었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모두 기존의 정책을 중심으로 일부 새로운 안을 첨가한 것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 발전적 강화가 대부분의 정책에 강조되고 있었다는 점과,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문화교류에 대해서도 정부나 민간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하여 역할주체가 각자의 활동을 강화하면서 상호협력이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교류 확대에 있어서도 지역별 국가별로 세심한 배려를 하면서 사업을 실시할 것과 각 교류분야에 있어 체제와 기반의 정비, 문화의 쌍방통행의 강화, 영상을 통한 영향력의 극대화 등도 강조되었다. 일본의 국제문화교류가 보다 치밀하고 전략적이며 효과적으로 전개될 것임을 암시한 것이다.

범국가적 차원에서 일본문화를 전략적으로 발신하려는 의지는 『문화외교 추진에 관한 간담회』보고서를 통해 강조되기 시작했다. 보고서는 80년대부터 이어진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³⁵⁾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되었으나, 여기서 주목할 것은 보고서의 제목이 「문화교류

32) 『外交青書』1989年度版、外務省、pp.114-118

33) 『外交青書』1990年度版、外務省、p.130

34) 総務省行政監察局編(1991)『国際文化交流の現状と課題』大蔵省印刷局、pp.145-149

35) 구체적으로는『경제일변도로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일본」으로부터의 탈각』(86~89년), 『냉전 후의 새로운 시대에 있어서의 교류모색』(93~94년), 『21세기 일본의 구상』(99년), 『21세기 일본외교의 기본전략』(02년), 『금후의 국제문화교류의 추진에 대해』(03년), 『관광입국간담회보고서』(03년), 『중동문화교류대화미션「보고와 제언」』(03년) 등이 있다.

의 추진」이 아닌 「문화외교의 추진」으로 명명되었다는 것과 동아시아와의 연대감 강화를 위해 매력적인 일본의 사상과 문화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발신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문화외교의 5대 주요테마 가운데 하나로 강구되었다는 점이다.

문화교류에서 문화외교로의 발상전환과 추진전략은 『「문화교류의 평화국가」 일본의 창조를』 통해 체계화되어 갔다. 내각총리대신이 직접 주재하고 외무성의 협력과 국제교류단체 관계자들의 자문을 얻어 정리된 동 보고서는 문화외교를 「문화교류의 자립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열린 국익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교류를 촉진하는 것」³⁶⁾으로 정의한 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시민레벨에 있어서의 이해촉진」과 「쌍방향 교류」를 언급했다. 다양한 레벨에서의 문화교류를 통해 일본이해를 촉진시키는 것이야말로 외교적 분쟁이나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이라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인식은 21세기의 문화외교의 목적으로 이어졌다. 구체적으로는 1) 자국에 대한 이해 촉진과 이미지 향상, 2) 분쟁회피를 위한 다른 문화·문명 간 상호이해와 신뢰의 함양, 3) 전 인류에 공통의 가치나 이념의 육성에 공헌하는 것³⁷⁾으로 정한 뒤, 이를 위해서는 일본국민의 문화외교에 대한 인식제고와 관심을 불문코 문화교류의 다양한 담당자가 연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화외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나라 전체가 명확한 이념과 방법론을 확립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이념으로 문화발신을 통한 「21세기형 쿨」의 제시, 문화 창조를 위한 장(場)의 육성으로 이어지는 「창조적 수용」, 공생을 존중하는 마음을 보편적인 일본의 메시지로서 세계에 전달하여 「다양한 문화나 가치와의 가교」로서 공헌하는 것 등을 문화외교의 3대 이념으로 설정했고,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행동방침으로 일본어의 보급이나 일본의 애니메이션대육성, 레지던스형 교류추진, 지적교류의 추진, 문명 간 대화의 촉진, 문화재 국제협력 컨소시엄구축 등을 제시했다. 일본브랜드의 발신강화를 통해 내셔널 이미지를 체인지하겠다는 의지였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아소타로(麻生太郎) 외무대신은 「가치외교」를 주창하기 시작했다. 그는 「민주주의, 자유, 인권, 법의 지배, 그리고 시장경제. 그러한 보편적 가치를 외교를 추진함에 있어 대단히 중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가치외교」라고 했다. 그리고 그 가치외교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라시아 대륙의 외연에서 성장해온 신흥 민주주의 국가들을 띠(帶)처럼 연결하여 <<「자유와 번영의 호(弧)」(arc of freedom and prosperity)>>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³⁸⁾. 일미동맹의 강화와 유엔을 통한 국제협조노선의

36) 文化外交の推進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2005.7)『「文化交流の平和国家」日本の創造を』, p.2

37) 『「文化交流の平和国家」日本の創造を』(전계), p.2

확대, 동북아 제국과의 관계강화라는 기존의 일본의 외교노선에 보편적가치를 바탕으로 자유와 번영을 추구하는 이념을 새롭게 가미함으로써 일본외교의 신기축(新機軸)으로 추진하겠다는 의도이다.

아소외상이 언급한 「가치」들은 실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일본이 전통적으로 인식하고 실천해온 것들이자 90년대부터는 일본이 국제사회에서도 묵묵히 발신하고 실천해온 외교적 자산이고, 인간의 자유나 기본적 인권 보장, 그리고 시장경제의 확립 등은 정치적 안정과 경제번영을 기약할 수 있는 토대라는 것이다. 그 실체를 일본은 전후의 60년을 통해 국제사회에 증명해 보였기에 일본은 이러한 가치들을 세계의 「보편적 가치」로 확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고, 이를 외교력으로 결집시켜 국제사회의 번영에 독자적으로 공헌할 수 있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는 논리이다.

6. 맺음말

제국일본이 일본의 문화 전파를 통해 제국일본의 이미지를 개선하려 했듯이, 전후부흥에 성공한 일본 역시 국제사회에 복귀하면서 군사력을 포기한 평화국가로서의 이미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 연장선상에서 일본은 개도국의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선진대국의 이미지 확산과 글로벌협력시대에 국제사회에 대한 책임있는 역할과 공헌을 다하는 글로벌리더국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20세기의 문화외교를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일본의 전통적 가치관 및 사회경제시스템과 결부시켜 일본의 외교자산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했고, 21세기에 들어서는 그러한 방향성을 보다 강화해 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2003년에 국제교류기금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언급되어 있다³⁹⁾.

「일본은 근대화의 과정에서 단순히 구미제국의 사회경제제도를 배워 이것을 도입한 것은 아니다. 일본의 근대화를 지탱한 것은 근대화 이전에 일본사회가 배양해온 높은 식자율, 물건만들기를 중시하는 가치관, 상당한 정도까지 발달한 시장경제와 기업가정신 등, 일본의 전통적 가치관과

38) 麻生太郎日本國際問題研究所セミナー講演「“自由と繁榮の弧”をつくる」(2006年11月30日)
http://www.mofa.go.jp/mofaj/press/enzetsu/18/easo_1130.html(2013.11.27)

39) 國際交流研究会(2003.4)『新たな時代の外交と國際交流の新たな役割-世界世論形成へ日本の本格的な参画を目指して-』國際交流基金, p.20

사회시스템이다. 이것이 일본의 근대화를 떠받쳤다고 하는 의미에서 일본의 근대화는 내발적이었다. 일본이 보편적 가치의 공유를 향해 국제사회에 공헌해갈 즈음에는 이러한 보편적가치관을 갖고 있는 일본의 전통적 가치관, 문화, 사회경제시스템을 외교자산으로 활용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본의 근대화를 가능하게 한 내발적 요인으로서 일본고유의 가치관과 경험을 제 외국에 확산시켜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로 공유하게 하는 외교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전통적인 문화나 가치관을 통한 국제공헌은 이미 아시아의 경제개발에 커다란 경험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외교자산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발휘해 왔다는 자부심을 일본사회는 갖고 있다. 동남아시아에 형성된 우호적인 대일여론에 자신을 가져야 한다는 지식인들의 외침⁴⁰⁾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 이력을 감안하면 일본외교가 추구하는 일본적 가치의 세계화=보편적가치의 구현은 일본의 내셔널이미지의 체인지는 물론이고 주요선진국의 일원으로서의 외교적 영향력 강화에도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일본사회는 판단하고 있다. 제국일본이 일본문화의 「해외선양」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도」국으로 부상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이후 일본사회는 「일본적 가치」를 확산시키려는 지향성을 잠시라도 멈추지 않았다. 문화외교는 바로 그 이념을 실행하는 수단으로서의 역사성을 보유하면서 작금에는 「홍보문화외교」라는 이름으로 보다 강화되어 가고 있다.

【參考文獻】

『わが外交の近況』外務省、1957年9月「二、わが国外交の基調」参照
<http://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57/s32-2-1-1.htm#6> (2013.11.21)
 『わが外交の近況』1963年度版、外務省、p.300
 『わが外交の近況』1971年度版「第6節 国際的な各種交流の促進」참조
<http://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71/s46-1-2-6.htm> (2013.11.25)
 『わが外交の近況』1972年度版、外務省、p.386
 『わが外交の近況』1973年度版、外務省、「第2章わが外交の基調 第1節基本的課題」
<http://www.mofa.go.jp/mofaj/gaiko/bluebook/1973/s48-1-2-1.htm#m196>(2013.11.24)
 『わが外交の近況』1980年度版、外務省、p.16
 『わが外交の近況』1980年度版、外務省、p.41
 『外交青書』1989年度版、外務省、pp.114-118

40) ODA로 동남아시아에 축적한 자산에 자신을 가져야 한다는 일본의 보수지식인들의 목소리가 대표적인 예이다. 그들은 한국과 중국이외에는 전반적으로 대일여론이 매우 우호적이라는 사실에 고무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渡辺利生外(2009)『どうするどうなる日本の活路』海竜社、pp.121-124

『外交青書』1990年度版、外務省、p.130

『外交青書』2001年度版、外務省、pp.133-134

麻生太郎日本國際問題研究所セミナー講演「“自由と繁榮の弧”をつくる」(2006年11月30日)

http://www.mofa.go.jp/mofaj/press/enzetsu/18/easo_1130.html(2013.11.27)

第100回国会における中曾根内閣総理大臣所信表明演説(83年9月10日)『わが外交の近況』1984年度版、外務省、p.376

外務省文化事業部編『國際文化交流の現象と展望』, pp.10-11

金敬熙(2004)「援助における開発と環境規範の対立」『アジア太平洋レビュー2004』, p.28

金弼東(2007)『일본-일본인인론의 재발견』J&C

_____(2008)「戦後日本外交史における‘文化外交’の推移と意味」『일본학보』제75집, 한국일본학회

_____(2008)「戦後日本外交史における‘文化外交’研究-1960年代を中心に-」『일본학연구』제24집, 단국대학교일본연구소, p.84

_____(2009)「戦後日本の國際社会への復帰と文化外交」『日本語文学』제46집, 일본어문학회, p.392

_____(2010)「帝国日本の‘文化外交’に関する少考」『일본학연구』제29집,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_____(2010)「戦後日本の文化外交におけるア-ムズ レングス政策 の導入背景」『일본학보』제83집, 한국일본학회

「國際交流基金法」第1章 第1条(昭和47年6月1日, 法律第48号)

國際交流研究会(2003)『新たな時代の外交と國際交流の新たな役割-世界世論形成へ日本の本格的な参画を目指して-』國際交流基金、p.20

國際交流基金(2006)『國際交流基金30年の歩み』中央公論事業出版、p.21

田中耕太郎(1939)「文化協定と文化耕作」『改造』, pp.8-9

三木清(1938)「東亜思想の根拠」『改造』, p.12

三木清(1940)「文化の力」『改造』1940年11月、pp.116-120

杉村陽太郎(1933)『國際外交録』中央公論社、p.363

総務省行政監察局編(1991)『國際文化交流の現状と課題』大蔵省印刷局、pp.145-149

文化外交の推進に関する懇談会報告書(2005)『「文化交流の平和国家」日本の創造を』, p.2

法眼晋作(1981)『日本の外交戦略』原書房、pp.128-129

柳澤健(1934)「國際文化事業とは何ぞや」『外交時報』第704号、pp.71-74

渡辺利生外(2009)『どうするどうなる日本の活路』海竜社、pp.121-124

논문투고일 : 2014년 03월 10일
심사개시일 : 2014년 03월 20일
1차 수정일 : 2014년 04월 09일
2차 수정일 : 2014년 0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14년 05월 20일

〈要旨〉

문화외교를 통해 본 「일본적 가치」의 대외지향성

전후일본은 무력행사의 포기를 전제로 한 평화산업국가의 이미지를 국제사회에 각인시켰고,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일본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며 흔들림 없는 선진민주주의국가로서의 지위를 구축했다. 시장경제나 자유민주주의, GATT나 WTO와 같은 보편적인 가치나 국제시스템하에서 불철주야 노력한 「일본국민의 각고정려(刻苦精勵)」의 결과라는 자평이다. 20세기 일본의 성공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가치나 제도, 그리고 일본적 가치의 우수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인식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적 가치의 대외지향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21세기의 일본외교가 국제사회에서 자국의 프레젠텐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구할 것인가를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적 가치」의 확산을 주도하는 일본외교의 DNA가 제국일본의 문화외교로부터 출발했음을 확인하면서, 제국일본이 추구한 일본문화의 해외선양의 유산이 전후에도 그대로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과, 전전·전후를 통해 일본의 문화외교가 추구하고자 했던 일본적 가치의 해외발신 노력이 시대별로 어떠한 배경과 이념하에 추진되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Japanese Values” of the external orientation through cultural diplomacy

After following the war defeat, Japan has reinforced economic diplomacy and cultural diplomacy, Cultural diplomacy in Japan contributed to shift national imag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is research studies the cultural diplomacy in Japan from 1930 to 2000. The imperial nation, the postwar nation, the economic wealthy nation and the global nation of Japan are the main actors of comparative study in detail. During the process, the author has focused on that how Japan would expose their own value to foreign countries. As following the fact, Japan had made the image which is a nation to pursue peace through the reinforcement of cultural diplomacy, when Japan returned the international society. In addition, through the diffusion of unique value of Japan, the nation has expanded the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society.